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길놀이 1일 광주시 남구 대촌 들녘에서 개막된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에서 주민들과 사물놀이패 등 200여명이 길놀이를 하고 있다. 47종의 콩, 동과(冬瓜), 호박 등 채소와 다양한 꽃을 이용해 조성된 녹색체험장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민·관 함께 '軍문화축제'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민(民)·관(官)·군(軍)이 함께하는 '군(軍) 문화축제'가 열린다. 육군 제31사단(사단장 서갑원 소장)은 건군 60주년을 맞아 오는 3~5일 '광주·전남 군 페스티벌'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호남에서는 처음 열리는 군·관·민 문화축제인 이 페스티벌은 의

육군 31사단 3일부터 사흘간 장갑차 탑승 등 19가지 행사

군장비 전시 등 그동안 지역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독특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장갑차 탑승과 서바이벌 사격, 고무보트로 호수 건너기, 낙하산 메고 달리기, 수류탄 투척 등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병영 체험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이밖에 인기 가수 출신으로 군에 입대해 그룹 G.O.D의 김태우, 성시경, 싸이 등 연예 장병의 팬 사인회와 마술쇼·군악 연주회 등 특별 공연도

나주 혁신도시 '유비쿼터스 시티' 건설사업 협약

'빛가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된다. 나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사업 시행 3사는 1일 나주시청에서 유비쿼터스 시티(U-city)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U-시티 건설은 혁신도시의 경쟁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60억원을 투입, 방범과 교통 등 8개 분야에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구축된다.

시행 3사는 내년까지 실시 계획 등을 완료하고 혁신도시가 완공되는 2012년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구 시가지도 오수 전용관 설치

서구 쌍촌·광천동 일대 465억 투입 오수·빗물 분리 처리 하천 수질 개선

광주시 구 시가지에도 오수(汚水) 전용관이 본격 설치된다. 그동안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빗물과 함께 유입되던 오수를 별도로 처리해 수질오염을 줄이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수전용관이 설치되면 각 가정에 설치해왔던 정화조가 필요없게 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화조 없는 도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서구 유촌·쌍촌·내방·화정·광천동 일대의 기존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인 오수전용관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이달부터 오는 2011년

상반기까지 465억원이 투입되며 ▲오수관 신설 30.5km ▲기존 우·오수관 개량 3.1km ▲배수시설 정비 1천 582가구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와 교통처리대책 수립을 마친 뒤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와 빗물은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함께 유입·처리되고 있으나 비가 오면 일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오수전용관이 설치되면 기존 주택의 정화조는 폐쇄되고, 신설되는 개량형 오수받이와 오수 전용관을 통해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정화조 청소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수납할 수 있고 건물 신·증축때도 정화조 설치가 필요없게 된다.

또 오수와 빗물을 별도로 처리해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꿀 수 있으며, 지하수나 무허가 배출수 등의 유입을 차단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광주천 및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무지구나 수

암지구, 참단지구 등 신 시가지는 오수전용관이 별도로 설치되고 있으나 구 시가지 정비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수전용관이 설치되면 주택내 화장실과 욕실에서 사용한 물과 야외에서 세탁이나 자동차 청소때 사용하는 물도 반드시 전용관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라 영산강 수질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와 빗물을 분리 처리해 '정화조 없는 도시'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투자자를 공모,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 또는 2010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토요일 버스전용차로 폐지

광주시 내달 1일부터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토요일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11월 1일부터 토요일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폐지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 버스 이용 승객과 교통량 감소 등 교통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

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현재 광주지역 버스전용차로는 대남로 농성광장~남광주4거리(9.8km)를 비롯해 모두 8개 노선 47.2km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a good hearing ai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본점 (062) 227-9940 and 총장점 (062) 227-9970.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real estate agency, featuring a woman's portrait and contact number 062) 671-1199.

Advertisement for '자연IN' (Nature IN) real estate project, featuring a landscape image and contact number 062) 653-9870.